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세계한인비즈, 전북 경제 도약 중요 전환점

5800만 달러 수출 계약... 역대 대회 사상 가장 커
대형 박람회 행사에서 나아가 대중적 관심 이끌어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장으로 자리매김

“비즈니스미팅 2만여 회, 상담 금액 6억3,00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액 5,800만 달러! 역대급 성과 도인 여러분, 우리 전북이 다시 해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사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회의 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다짐했다.
전북에서 열린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수출 상담부터 현장 수출 계약에 이르기까지 역대급 성과를 기록했다.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세워진 기업 전시관에는 251개 기업이 326개의 부스로 참가했으며, 이 중 116개 도내 기업이 참여해 전 세계 한인 바이어들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을 이뤄냈다.
대회 첫날부터 도내 4개 기업이 6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튿날에는 도 연계 프로그램인 JB페어를 통해 도내 6개 기업이 200만 달러의 현장 수출 계약을 맺었다. 마지막 날에는 전북의 톱티파마텍이 5,000만 달러의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켜 주목받았다. 단일 건으로 역대 대회 사상 가장 큰 금액이다.
대회 기간 현장 계약을 성사한 대회는 2002년 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부터 22차 대회에 이르는 동안 이번 5,800만 달

러를 포함해 7차 5,896만 달러, 8차 7,374만 달러, 21차 1,940만 달러 등 총 47개 대회가 전부다.
수출 상담 측면에서도 상담액 6억 3,000만 달러는 역대 대회 중 가장 큰 규모로, 5억6,421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기록한 7차 대회와도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인다.
방문객 또한 대체로 수천 명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 국내 기업인 등 3,500여명과 전시관 방문객 1만4,000여명 등 기간 동안 총 1만7,5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 기업 위주의 대형 박람회 행사에서 나아가 대중적 관심을 이끈 대회로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단순한 컨벤션을 넘어 전북대학교 캠퍼스와 지역 문화 공간을 활용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공간으로 구성됐다.
삼성문화회관과 전북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개회식 및 환영만찬은 총 1,00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빙속에서 진행된 개회식장에서 만찬장에 이르는 취타대 및 노상놀이 행렬은 고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자 하는 따뜻한 도민의 간절함과 헌신으로 전 세계 경제인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선사했다.
환경 만찬 또한 도내 14개 시군의 특



지난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과를 공유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산품을 활용한 다채로운 음식을 선사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전주비빔밥은 세계 경제인의 화합이라는 이번 대회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핵심 상징으로 역할을 했다.
특히 행사가 열린 대학 캠퍼스는 단순 장소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전북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CEO들이 전북 청년들에게 성공 스토리를 전하는 특강은 대회 전후로 총 40차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

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주요 인사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세밀한 준비와 전북 도민의 따스한 환대에 깊은 감동을 표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총장은 “전북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역대급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전북의 세심한 준비 덕분에 참가자들이 대회를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감사를 전했다.
김우재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장은 “대회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재외동포들의 반응을 보면서 전북이 정말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면서 “대회장으로서 그런 평을 들으니 무척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었다. 모든 게 완벽한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북을 전 세계 비즈니스 허브로 만드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성과가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유치지원실장의 총괄 관리하고 관련 부서(기업애로해소과·일자리민생경제과), 관련 유관기

관(경제통상진흥원·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코트라·전주상공회의소)과 함께 지속적인 해외마케팅과 글로벌 교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북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전북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전북은 도민들과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건축설계 본격

삼성전자, 고창군 찾아 협의사항 논의
무영건축, 설계 담당... '효율성 극대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활력산업 단지에 건립되는 삼성전자(주) 스마트허브단지(이하 스마트물류센터)의 건축설계가 본격화 됐다.
지난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남(24일) 삼성전자 기업관계자가 지역을 찾아 심덕섭 군수와 티타임을 갖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삼성전자의 고창군 스마트물류센터 설계를 맡은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무영건축은 지난 10여년동안 부천로 지스티스파크, 다이소부산허브센터, 광주오포물류단지, 쿠팡대구물류센터,

인천석남물류센터 등 국내 대규모 물류센터를 설계한 이 분야 선두업체다.
또한, 국내 여러 곳에서 물류센터 행정처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핀 뒤, 기업체와 행정·주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 첨단물류센터 모델을 개발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성공적인 건축설계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형 물류센터 설계 노하우와 최근 물류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운영을 바탕으로 자동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를

말게 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주)는 고창신활력산업단지 18만1,625㎡(축구장 25개 규모)를 매일 해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합병 공사비를 반영한 분양대금은 총 173억원 정도이며 2024년 11월 중에 소유권 이전 예정이다.
물류센터는 2025년에 착공해 2027년 내 준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중 건설·기계장비 등 관련 기업 및 인력의 우선 활용·채용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의 스마트물류센터가 본격 운영시 500여명의 직·간접적 고

용 창출은 물론, 학계 및 관련 산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무형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업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물류센터 설계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합의의 장이었다”며 “고창 물류센터가 향후 남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담당하는 호남권 대규모 물류센터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국토부, 내년 새만금 SOC에 총 1088억원 편성

올 454억원에서 634억원 증액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에 총 1,08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54억원에서 600억원 이상 증액된 규모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위 소속 전영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예산으로 총 108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새만금 SOC 적기 공급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454억원에서 634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항목별로 ‘새만금 국제

공항’ 예산은 327억원에서 632억원, ‘지역간 연결도로’ 예산은 127억원에서 40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던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에도 내년도 54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국토부는 새만금 SOC 관련 올해 예산에 1,197억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1,120억원을 깎아 7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국회에서 377억원을 증액, 최종 454억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 1,088억원은 지난해 기재부에서 삭감당하기 전 국토부가 편성했던 1,197억원을 거의 회복한 수준이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완주군의원이나 완주군민에게 먼저 라기가가겠습니다.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길,
완주군민의 삶을 돌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꿈꾸는 길,
그 길의 '좌표'는 오직 '완주군민' 뿐입니다.